

# OK금융그룹 코로나19 극복 위해 헌혈 캠페인 동참 “국가적 재난 사태에 나눔 문화 확산”



OK금융그룹(회장 최윤)이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혈액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다. OK금융그룹은 헌혈 캠페인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보답하고,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OK금융그룹은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계열사 내 희망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 OK금융그룹 본사(서울) ▲ 회현·가산센터(서울) ▲ 대전센터 ▲ 각 지역 영업점 등에서 이뤄졌다.

OK금융그룹은 2010년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혈액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2분기에 진행했던 일정을 1분기로 앞당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혈액 보유량은 3.7일분으로, 적정 수준인 5일분보다 1.3일분 부족한 상황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헌혈 캠페인으로 코로나19에 따

른 국가적 혈액 부족 사태 극복에 힘을 보탬 것”이라며 “다양한 CSR 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눔의 문화가 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OK금융그룹은 사랑의 헌혈 캠페인 외에도 OK배·정장학재단 운영, 소외계층 김장·연탄 배달 봉사, 골프 꿈나무 육성, 스포츠 선수 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CSR 활동을 벌이고 있다. ▼

